

‘내란수괴’ 대통령 앞에서 대한민국 법치가 멈췄다

경호처에 막혀 체포영장 집행 중단
오늘 시한 마감 공수처 재집행 주목
영장 연장·구속영장 청구 등도 검토

대한민국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이 법을 수호해야 할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앞에서 멈춰섰다. <관련기사 3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막아서면서 법 집행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특히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내 재집행 여부도

불투명해지면서, 국민 모두가 지켜야 할 법질서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다.
법률가 출신인 대통령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대한민국 헌법(제11조)까지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 혐의 체포영장 재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공수처는 6일까지 유효기간인 체포영장의 재집행, 체포영장 연장,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시한 하루 전인 5일 서울 일대에 대선투표가 내린 기상 상황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경호처 협조 공문과 관련한 회신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체포영장 재집행을 시도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재집행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경호처의 거센 저항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막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실제 공수처는 지난 3일 오전 6시 14분께 한남동 관저로 출발해 오전 8시 2분께 관저 입구 안으로 진입했지만, 경호처와 군부대에 가로막혀 관저 200m 앞 지점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 경호처는 공수처가 집행 시작 약 5시간 30분 만인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할 때까지 200여명의 인력과 차벽을 동원해 강하게 저항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2면으로 계속)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가 버스들로 막혀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 전일빌딩245서 희생자 추모 이어간다

전남도 등 전국 31개 분향소 연장
광주시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합동분향소를 기존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동구 전일빌딩245 1층으로 옮겨 추모 열기를 이어간다.
광주시는 “국가애도기간인 지난 4일까지 5·18민주광장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설치·운영 했으며, 5일부터는 전일빌딩245 1층 실내로 이전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동분향소는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되며, 희생자

179명의 위패를 안치해 희생자들을 기린다.
합동분향소 이전·연장 운영은 희생자 유가족 대표와 협의해 결정했으며, 운영 기간에 대해서도 향후 유가족 측과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전남도도 유가족과 국민적 추모의 뜻에 따라 무안국제공항과 무안스포츠파크, 전남도청 등 지역 합동 분향소를 2월 중순까지 연장 운영한다. 목포, 여수, 나주, 광양, 담양, 화순, 해남, 영광, 완도 등 일선 시·군도 자율적으로 분향소 운영을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전국적으로 설치된 105개 합

동분향소의 연장운영 등에 대해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으며, 광주·전남 12곳과 기타 지역 19곳 등 총 31곳의 분향소가 연장 운영을 결정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En Corée du Sud, les plaies à vif du massacre de Gwangju

Marqués par les 200 morts de 1980, les habitants se sont mobilisés contre la récente loi martiale



프랑스 유력 일간지인 '르몽드'가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를 계기로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집중 조명한 지난달 24일자 국제면.

그들은 왜 탄핵 촉구 집회 선두에 나섰다 르몽드지尹 계엄선포에 5·18 집중조명

학살상처 간직한 광주 시민들
“다시 감옥에 갈 각오로 나서”

프랑스 파리=정성필 통신원

프랑스 대표 정론지 '르몽드'가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를 계기로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르몽드는 지난달 24일자 국제면(7면)에 “한국에는 광주 대학살의 상처가 또렷하게 남아있다”라는 제목의 특기사를 냈다. 기사는 5·18 국립묘지의 영안소 사진과 함께 전체 페이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일본 주재 특파원 필립 메스메르 기자는 지난 12월 중순께 광주를 직접 방문해 5·18 재단 관계자 등을 만나고 현장을 다니며 직접 취재한 내용을 기사화했다. 기사는 전일빌딩 내부의 탄흔을 설명하면서 시작한다.

“광주 시내 중심가에 있어 시민군이 점거했던 전일빌딩에는 군용헬기에서 발사된 총탄에 의해 갈라진 흰색 석고벽이 학살의 흔적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광주시민들의 반응을 담고 있다. 5·18의 당사자인 박강배 5·18재단 이사는 “80년 당시의 일로 다시 감옥에 돌아갈 걸 걱정했다”며 “주변 사람들에게 군인이 울 테니 문을 닫으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즉각 단체장을 소집하고 광주에 군대(계엄군)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50대의 다부진 체격을 가진 시장은 윤 대통령과 그의 ‘광기’를 날카로운 언변으로 지적했다”고 적었다. 기사는 왜 광주사람들이 윤 대

령의 계엄령 선포에 이처럼 트라우마와도 같은 반응을 보였는지 설명하기 위해 1980년 당시 상황을 자세히 묘사한다.

박정희 사망과 서울의 봄, 예술가들과 학생들의 저항 운동, ‘서울의 봄’이 사라진 자리에 들어선 전두환 군부 그리고 광주 대학살.

메스메르 기자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상징적 장소인 5·18민주광장에서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광주시민들의 촛불이 타올랐다고 설명했다. 촛불 시위 중에는 5·18을 직접 겪은 사람들이 선두에 있었다며 그들의 증언을 소개했다.

1980년 학생 지도부에 있었던 송선태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끔찍했던 1980년 봄, 상무대 감옥에 3000명 이상 수감됐는데 30명이 들어가는 공간에 150명을 밀어 넣었다. 하루 16시간을 무릎 꿇은 자세로 있어야 했고, 움직이면 군인들이 때렸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장애를 입었고, 일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덧붙였다.

원순석 현 이사장은 “군부는 김대중이 광주 시민들을 지원했고, 북한의 정보부에 의해 조종되었다는 식의 시나리오를 갖고 있었다”며 “우리는 그들의 시나리오에 맞는 말을 할 때까지 고문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특집 기사는 광주 출생인 노벨상 수상자 한강 작가의 수상 소감을 소개하며 마무리했다. “12살 때 아버지인 소설가 한승원 씨의 사진첩에서 훼손된 시신과 헌혈 행렬을 본 뒤 과거가 현재를 구원하고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울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적었다.

원 이사장은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이 “광주의 기억을 되살리는데 도움이 됐고, 윤 씨의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동원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spiljeong@gmail.com

